

사회복지정보원

Network of Committed Social Workers !

꿈과 열정으로, 땀과 눈물로, 우리는 오늘도 복지인의 길을 간다!

사회복지정보원은 꿈과 열정으로 복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지와 격려, 자극과 도전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지지망입니다. 회칙도 회원도 회비도 없고 특별한 모임도 없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나이와 성품이 다르고,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저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복지를 생각하고, 복지를 꿈꾸고, 배우며 실천하는 사람, 그가 바로 Committed Social Worker, 우리의 소중한 동료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을 거란 믿음 있으니 만나지 않아도, 소식 없어도,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복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지지와 격려, 자극과 도전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많은 책을 읽고 견문과 체험을 넓혀 지식지도를 그려 가는 사람들

모든 事象속에서 복지를 생각하고 복지를 읽어내며 복지를 꿈꾸는 사람들
도전하고 개척하며, 복지의 지평을 넓혀가는 사람들
세상 속에 복지를 풀어내고 생활 속에 복지를 녹여내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복지인이 되고자 합니다.

복지인의 꿈, 복지인의 길, 복지인의 삶을 찾고 또 만들어가려 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사는 정예(精銳)복지인들이 되고자 합니다.

정보원은 이러한 복지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복지인 -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름

사회복지 - 나의 꿈 나의 인생 마이웨이

꿈과 열정으로, 땀과 눈물로, 우리는 오늘도 복지인의 길을 간다!

■ 사회복지정보원은

1992년에 설립하여 사회복지계의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약자를 위한 복지정보통신정책의 연구개발, 복지정보화론 강의, 가상복지관과 아카데미복지관의 연구 및 시범운영, 세계 최대의 사회복지 인터넷 사이트 “복지인마을” 구축·운영 등 다양한 복지정보화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96년 4월에 시작한 인터넷 서비스는 웹서버와 검색서버, 메일서버, 뉴스서버, 메일링리스트서버, 일한번역서버, IRC서버, 복지신문, 자료실과 복지법령실 등을 통해 99년의 경우 하루 평균 10만여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 1994~1995 자원봉사전산망 vtnet 기획·개발, 순회교육 (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개인적으로 정보원 설립 이전에 했던 복지정보화 업무: 1990-1993 장애인복지전산망 REHAB 구축, 운영 - 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운영, 1991-1992 하이텔 장애인복지동호회 재할통신 개설, 운영 - 현, 두리하나)
- 1994~1995 천리안 사회복지포럼 개설, 운영
- 1996. 4~현재 : 사회복지 인터넷 서버(<http://welfare.or.kr>) 구축, 운영

- 1997. 8 복지인의 인터넷 사이트 welfare.net 개설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운영)
 웹호스팅서버(Linux, Aparch), 뉴스서버(Collabra News Server), 메일링리스트서버(Majordomo),
 메일서버(Linux), BBS호스트 구축, 온라인교실(가상대학) 운영, 사회복지인에게 email@welfare.net 무료 발급
- 1995,1997 복지정보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1995~1996 성공회대학교 부설 아카데미 복지관 사업 기획 및 제안
- 1997. 5 전국사회사업대학생정보화포럼 조직, 매 방학때마다 정보화캠프 실시 (1~3차)
- 1998. 7 일한번역 서버 및 IRC서버 구축
- 1998. 7 사회복지 전문 검색서버 구축
- 1998. 10 서울시 복지종합정보시스템 제안
- 1998. 10 복지인마을 (<http://maeul.welfare.net>) 개설
- 1999~2000 성공회대학교 부설 아카데미복지관 “늘푸른복지관” 9개월간 인큐베이팅
- 1999. 2. 1~5 제4차 사회사업대학생정보화캠프 - 꿈과 열정으로! 준비된 사회복지사!!
- 1999. 7. 12~15 제5차 사회사업대학생정보화캠프 - 복지인의 지식혁명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전
- 1999. 7.19~8.14 제1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 복지순례 (4주간)
- 1999.12 복지인마을 정보시스템 일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기증
 웹서버 겸 DNS서버 1대, 메일서버 겸 메일링리스트 서버, IRC서버 1대, 뉴스서버 겸 일한번역 서버 1대, 네트워크 장비, 서버들에 있는 모든 자료와 소프트웨어, “복지인마을” 사이트명 (2005년 9월 8일에 welfare.net 도메인 소유권까지 무상 양도함)
- 2000.1.3~29 제1기 실무합숙훈련
- 2000. 7.12~15 제7차 사회사업대학생정보화캠프 - 도전! 개척하는 사회복지사의 길
- 2000. 7.17~8.12 제2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 복지순례 (4주간)
- 2000.8~20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 - 복지서비스 지식정보화 비전 및 전략수립
- 2000.12.17~2001.2.24 제2기 실무합숙훈련 (10주간)
- 2001.2 대학부설 아카데미복지관에 관한 해설 및 제안서 발표
- 2001.6.25~8.25 제3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복지순례 (9주간)
- 2001.12.16 ~2002.2.23 제3기 실무합숙훈련 (10주간)
- 2002.2. 4~8 제8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보화캠프 - 복지의 지평을 넓히자!
- 2002.7.15~8.24 제4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복지순례 (6주간)
- 2003.12.22~2004.1.17 제1기 광산지역사회사업 활동 (4주간)
- 2003.6.30~8.16 제5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복지순례 (7주간)
- 2004.2.9~14 제9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보화캠프 - 나의 꿈, 나의 인생, 마이웨이!
- 2004.6.21~8.23 제6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복지순례 (64일간)
- 2004.12.27~2005.1.29 제1기 섬사회사업 활동 (5주간)
- 2005.2.15~19 제10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보화캠프 - 나의 꿈, 나의 인생, 마이웨이!
- 2005.7.13~2005.8.16 제2기 섬사회사업 활동 (5주간)
- 1993~ 복지요결(자연주의 사회사업), 복지광세(성경에서 배우는 사회사업)
- 2004.6 복지소학(한문에서 배우는 사회사업)

1993년 정보원을 설립할 당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를 "invisible ubiquitous normal universal welfare for all"로 설정하고, 그 중간단계로 풀뿌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사설 사

회복지사 개인/합동 사무소의 확대, 이를 지원하는 프랜차이징과 그 인프라로서의 사회복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국민복지종합정보시스템 기반 구축과 복지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인프라구축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한 1999년 말, 그동안 개발, 운영해오던 복지인 마을 정보시스템 일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기증하였고 정보원은 고유 목적 사업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의 생산성을 높여 저렴하고도 품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생산, 유통시킬 수 있을까. 자선과 구제, 수용보호 차원 이상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브랜드 전략은 무엇일까. 복지관/생활시설의 핵심기능과 방법론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해야 할 길은 어떤 것들일까? 10년, 20년 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사람을 잘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러한 사회복지 과제들에 대하여 깊은 연민과 사명감으로 고뇌하며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천해 온, 또한 앞으로도 힘써 행할 몇 가지 대안들을 모아 정보원 웹사이트에 “복지요결”이라는 제목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계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생각해 온 이 “복지요결” 자료의 내용은 크게 ①복지이념과 비전의 공유, ②복지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체계 개선, ③인재양성과 복지인의 진로 개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지 비전의 공유를 위해서는, 자연주의 복지의 이념과 비전을 여러 기회를 통해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복지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①사회복지 프랜차이징과 브랜드 경영, ②External Service Broking, 자연주의 복지이념에 기초한 ③복지관의 실천방법론, ④생활시설의 실천방법론, 신설 복지관의 대안 - ⑤가상복지관 및 아카데미 복지관, 사회복지 간접자본(SOC) - ⑥국민복지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재양성과 복지인의 진로 개척을 위해서는, ①이런 복지인이 되어야 한다, ②벤처 사회복지사의 길, ③학습권 운동, 학습문화 개선운동, ④Before Service 등의 대안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 “인재양성과 복지인의 진로 개척”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정체된 사회복지의 활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인적 자원의 인프라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해외 복지활동이나, 외국인 노동자 복지활동, 시민단체로의 진출, 자비량 사회복지사, 벤처 및 프리랜서 사회복지사의 길 등 다양한 복지인의 길을 개척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며, 사회복지 대학생들을 조직화하고 철저히 훈련시키려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가을부터는 오지사회사업을 개척하여 오지사회사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오지가 우리를 부른다! 2004년 2월, 제9차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예화캠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농촌사회사업포럼을 구성하여 전국의 농촌사회사업현장을 탐방하고 앞서 농촌활동을 펼쳐가고 계시는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농촌 특강과 농촌사회사업 특강, 농촌사회사업가 간담회를 하는 등 캠프 전체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오지답사팀을 구성하여 전국 여러 지방의 오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오지 사회사업을 모색하였습니다. 오지활동 전문가들을 찾아뵈었고 또 캠프에 초청하여 특강을 들었으며 이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오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광산지역사회사업팀을 구성하여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1월 17일까지 가장 소외된 폐광마을이라는 강원도 태백시 철암마을에서 광산지역사회연구소와 협력하여, 철암어린이들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활동 즉, "내가 만드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공부방 프로그램, 문학교실, "나 떠나갈래 - 소집단 자유여행"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탄광체험과 지역 NGO 탐방, 지역조사도 하였습니다. 제9차 정예화캠프에서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 초청강연과 광활보고 및 광활 수료식을 함으로써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제1기 광산지역사회사업팀장이 철암에 상근 사회사업가로 헌신하여 그 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광산지역사회사업팀을 모집,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 후반기부터는 섬사회사업을 준비하여 그 해 겨울, 전남 완도군 생일도에서 제1기 섬사회사업팀 활동을 하였고, 2005년 여름에 같은 곳에서 제2기 섬사회사업 활동을 했으며, 이곳 역시 철암처럼 자체적으로 섬사회사업팀을 재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대학별 학습동아리 활동, 학습여행1),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예화캠프, 복지순례, 실무 합숙훈련 등을 통해 사회복지의 꿈과 열정, 긍지를 키워가는 사람들, 전국의 학우들과 지지와 격려, 자극과 도전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많은 책을 읽고 현장 견문을 넓혀, 지식지도를 그려 가는 사람들, 준비된 사회사업가, Committed Social Worker를 꿈꾸는 사람들의 전문적 지지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예화캠프를 실시하였는데, 2000년 여름 제7차 캠프는 "도전! 개척하는 복지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Pioneer들과 뜻 있는 학생들이 모여 사회복지의 길을 찾고 꿈과 열정을 나누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제3세계 해외 복지활동의 현황과 사례를 들려주면서 해외 복지활동의 다양한 채널과 참가방법을 소개하였고, 외국인노동자들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과제도 다루었습니다. 7명의 벤처 사회복지사들의 특강을 통해 우리도 나름대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도전하고 개척하여 벤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사회복지 정보전시회도 동시 개최하여 사회복지 도서 전시관, 분야별 전문 전시관, 해외 원조단체 및 외국인노동자복지 전시관, 벤처사회복지 전시관을 운영하였고 20여개의 다양한 강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프에는 90여개 대학에서 전공자 600여명이 참가하여 관심분야별 전문포럼 활동과 지역별 교체 등 전국의 동료 학우들과 폭넓게 사귀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자극과 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99년 캠프에는 84개 대학에서 5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겨울방학에 실시해온 실무합숙훈련에서는 복지관 실무 현장연수, 생활시설 실무 교육 및 단기 근무(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노숙인 현장 연수 및 거리상담, 기관 및 시설의 행정, 실무사례 워크숍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MBTI 의 이해와 실습, 사회복지 조사·통계 실무(조사설계부터 통계처리, 보고서까지 실제 프로젝트 수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실무에 대한 교육, 과업팀별 자료연구와 사업계획 수립, 진행, 평가까지의 실무수행, 컴퓨터 활용 실무, 사회복지 법령, 직장예절 등, 실무현장에서는 필요한데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실무특강과

1) 학교별 학습동아리에서는 한 학기에 10회, 매주 2시간씩 정기모임을 갖는데, 각자 사회복지 도서 1권을 읽어와서 나누며, 한 달에 한번씩 그 지역의 복지기관을 탐방합니다. 관심분야별 전문포럼에서도 수시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해당분야의 전문 복지기관을 탐방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봄과 가을학기에 각 2회씩 지방을 순회하며 학습여행을 하는데, 학습여행에서는 해당 지역의 복지기관 탐방과 간담회, 대학교 탐방과 특강, 지역 동아리 발대식 등으로 학습과 지지망 구축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장체험을 통해 숙달시키고 양질의 전문적 지지망을 갖게 하였으며 복지인으로서의 꿈과 열정, 긍지를 심어주었고, 살아가다 힘들 때 돌이켜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하여 1년과정의 “실무지원 아카데미”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실무지원 아카데미는 사회복지 전공자들로 실무지원단을 구성, 1년 동안 조직적인 현장 지원 활동을 통해 실무를 익히게 하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일종의 아카데미복지관입니다. 주요 훈련내용은, 프로그램별 Task Force Team 조직, 월 1회 이상 실무 지원 활동, 월 2회 사회복지 논문 워크숍, 주 1회 현장 탐방 및 선배 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 월 1회 증견 사회복지사와의 특별 워크숍 등이며 훈련생들은 여름방학 복지순례와 학기 중 학습여행 및 수학여행, 겨울방학 중 전국사회복지 대학생정예화캠프에도 참가합니다.

1999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실시한 복지순례에서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정신보건, 지역복지, NGO, 벤처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유형의 모범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며 클라이언트의 삶과 현실을 접하고, 선배들의 사상과 실무경험과 持論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철학과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배웠습니다. 동료들의 귀중한 체험과 훌륭한 지식과 사고방식, 성실한 자세와 섬기는 모습, 따뜻한 가슴과 표정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스승이었고 공부였습니다. 사상(事象)을 대하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넓은 안목과 열린 마음도 배웠습니다. 장차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인적자산이 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뜨거운 태양과 폭풍우와 고된 훈련을 서로의 지지와 격려로 헤쳐 나오며 함께 먹고 함께 씻고 함께 놓고 함께 뛰고 동고동락 하면서 형제애보다 깊은 우정을 키웠고 복지인의 삶을 함께 할 고도의 전문적 지지망을 형성하였습니다. 오직 복지인의 꿈, 복지인의 삶, 복지인의 길만 생각하며 시간을 밀도 있게 압축하여 살았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 아름다운 섬들을 누비며 심신을 수련하였고, 이땅 방방곡곡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가슴 뭉클하고 설레는 추억들을 남겼습니다.

사회복지정보원 <http://welfare.or.kr>